

신발을 찾고 싶나?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나?

를 더했다. 그러나 몇몇 험악한 아가씨들 말고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대두에게 최대 전성기는 태어난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대두는 생각할 것이 있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는 추수가 한창인 요즘도 늦잡을 늦어지게 자고 일어나, 서늘한 바람이 좋은 강가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일이었다. 그는 또 뭉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신발이 없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 놓고 있는 생명제라고는 가족 말고 없을 시간이었다.

“신발이 어디로 갔지?”
그는 일부러 소리 내어 말한 다음,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조용했다.

“신발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좀 더 소리를 크게 내어 보았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주 오래된 옛날로 ‘도둑’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게다가 대두네 이웃에는 신발을 물어갈 개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발이 저절로 사라진 셈이었다.

자, 이 ‘신발의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대두는 어찌 했을까. 그 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이다. 그날 오후,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대두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이 시간에 집에 있었던 적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나 싶어 부모들의 마음에 미약하나마 어떤 기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후시나, 역사나 법칙! 이날 이후 대두가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없었다.

“어떻게 좀 해봐요, 여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도 찾아봐야하지 않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부부 간의 대화였다. 방 안에는 한숨으로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한숨이었다. 측량이 가능하다면 말이지만.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두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생각이 끝날 때까지는 별 도리가 없지.”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도대체 신발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늙은 부부는 아들의 미래가 어찌된 사라진 신발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신발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사라진 것일까.

같은 시간, 대두도 자기 방에서 사라진 신발의 행방에 대해 골똘해 있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사라진 신발이 아른거렸다. 이리 놓고 저리 누워도 역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마구 떠올랐던 모든 의문들이 한 점으로 모아졌다.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던 ‘씨앗의 씨앗의 씨앗...은 어디서 났나’부터 시작해서, 바위가 모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의문들은 이웃길 골목에서 나온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사라진 신발만이 어디로든 날아가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대두에게 이제 시간의 흐름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좋은 것이 되었다. 오로지 신발에 관해서만 생각했다. 방 안에서 나가는 일 없이, 찻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니 몸이 발효가 될 지경이었다. 요즘의 ‘은둔형 외톨이’ 좀 될까. 아무리 맑고 투명한 날이라도 대두네 집 위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떠 있었다.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소리다.

겨울, 봄, 여름, 세 계절이 지나갔다. ‘생각’이라는 과도한 업무와



삽화 · 김홍인

운동 부족, 불규칙적인 식단으로 대두의 몸에는 어느 새 초기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괴로워하던 부모들도 차츰 그의 방문을 여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다시 가을이 왔다. 그날도 날이 환히 밝아서야 잠이 든 대두는 꿈을 꾸었다.

“니가 대두가?”
꿈이라는 걸 거의 꺾은 적 없는 대두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꿈을 꾸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낯선 말투의 목소리가 또 다시 말했다.
“니가 대두 맞나?”
“네? 누구세요?”
“나는 니 신발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이다. 아직도 신발 찾고 있나?”

대두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여졌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 너거 마을 뒷동산에 제일 큰 밤나무 아래? 그리로 나오나.”

그러더니 빠릿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는 사라졌다. 대두는 벌써 일어났다. ‘이게 꿈이라는 건가’. 대두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방문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스승일 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잠시 후,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어떤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두가 집 밖을 나와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두 쪽을 바라본 것은 비단 그의 외출이 신기해서 아니었다. 냄새 때문이었지. 이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 말이다. 이윽고 폐활량이 나빠진 대두가 허허대며 동네 뒷산 밤나무 앞에 도착했다. 정말 거기에는 한 노인이 앉아있었다.

“왔나?”
목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말투가 맞았다.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작은 체구에 누런 피부, 선만 살짝 그어놓은 것 같은 눈에선 어떤 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모 어디에서도 품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두는 드러내놓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했다.

“대두, 니 지금 내 생긴 거 보고 그러나?”
노인이 말했다. 대두는 딱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니 지금 그거 물어 불라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내가 그것도 갈기 주고 신발도 찾아주고 그랄 줄 아나?”

대두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때마다 피리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신발이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알면 신발은 안 찾아도 되고? 이유만 알면 되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노인의 질문에 대두는 갑자기 헛갈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신이 번쩍 든 대두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 봤다. 맨발이었다. 산길을 올라오느라 엉망이 된 맨발.

“신발을 찾고 싶습니다.”
대두는 눈을 짙은 감으며 충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던 대두가 말을 끝내고 나니 노인은 간 데 없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멍그러니 신발 한 켤레만이 놓여있지 뭉개. 그러니까 대두 자신의 것으로 추측되는 신발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것도 꿈인가 싶었다. 그러나 바람의 감촉과 새소리, 자신의 몸에서 나는 특 쏘는 냄새까지, 생기는 생시였다. 일단 신발을 신어 보았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신이 신발이 맞았다. 조금 험악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건 자신이 부쩍 마른 탓일 것이라고 여겼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도착한 그는 신발을 고이 벗어놓고, 목욕을 한 다음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지?”
대두는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자, 당신이 대두라면 어찌 하겠는가.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들으며 따라가면 별 재미가 없는 법이다. 하다못해 ‘내가 대두 같을 리 없잖아’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으리라.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니깐.

사족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이 왜 하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이유는 없다. 인물의 차별성을 위해서 선택했을 뿐. 일본 간사이 지방이나,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사투리를 구사했을 수도 있다.

고지연 작가는...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전문 기업 지니앤노박(www.jinindnovak.com)을 통해 환타지 소설 ‘수리아의 검’을 선보인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해 왔다.

세계 선불교육조선교류연맹 (한국육조선원)

대표 (한국 육조선원 용화사 방장) 석연화

- 지도위원 : 향운, 정진, 금봉, 해산
- 부원장 : 해봉 (김일석), 청산, 해봉 (이민택)
- 지도위원장 : 법봉
- 문화원장 : 원도
- 수선원장 : 효진
- 교육원장 : 종섭
- 복지원장 : 해문
- 호법원장 : 일웅
- 예술원장 : 영사
- 복지원장 : 해문
- 감찰국장 : 도관
- 사업국장 : 지원
- 홍보국장 : 해양
- 사무처장 : 자운
- 사서실장 : 자은
- 기획실장 : 청운
- 호법부장 : 선담
- 문화부장 : 법성

- 홍보부장 : 혜천
- 복지부장 : 자운
- 사무국장 : 선호
- 감찰부장 : 오성
- 비구니원장 : 성담
- 비구니부원장 : 종니, 해명.

주소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용화사
전화 033)761-7008, 2556 / 서울사무소 02)766-6800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석연화

- 부원장 : 청산, 동일
- 원로원장 : 돈오
- 울원장 : 만공
- 총회의장 : 향운
- 총회부의장 : 금봉
- 포교원장 : 자은
- 수선원장 : 해문
- 호법원장 : 탄공
- 교육원장 : 남륜
- 문화원장 : 원도
- 선원장 : 정진
- 복지원장 : 해명
- 총무국장 : 자운
- 사서실장 : 무영
- 기획실장 : 청운
- 감찰국장 : 도관
- 사업국장 : 수월
- 홍보국장 : 해양
- 사무국장 : 선호
- 사무처장 : 해암
- 호법부장 : 선담
- 문화부장 : 법성
- 감찰부장 : 혜천
- 사회부장 : 수인
- 사업부장 : 해명
- 조직부장 : 오성
- 홍보부장 : 법장
- 비구니원장 : 향운
- 비구니부원장 : 혜원

조직국장 : 정원

주소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용화사
전화 033)761-7008, 2556 / 서울사무소 02)766-6800